



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 하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알아보기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무엇일까?
2. SDGs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3. SDGs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무엇을 했을까?

1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무엇일까?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에 더불어 환경 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국가들은 함께 어떤 노력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약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 전 세계 유엔회원국들이 모여 합의한 것이 바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입니다. 2030년까지 모든 국가들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지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전에 또 다른 전 지구적인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그것입니다. 이 약속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과 전문가들이 결정한 첫 번째 목표입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2000년 유엔에서 전 세계의 정상들이 합의한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

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새천년개발 목표는 최초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개발 협력의 목표에 대해 공동의 약속을 달성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새천년개발목표가 실행된 이후 최빈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5세 미만의 아동이 사망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등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새천년개발목표를 만들 때에는 유엔 내부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여하였고 목표가 제한적이어서 전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목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유엔의 회원국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8가지 목표



가들이 왜 약속이 필요한지, 또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덟 가지의 목표는 점점 심각해지고 복잡해지는 지구의 위기에 대해서 알맞은 해답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시민들, 학자들, 연구자들, 그리고 유엔의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뒤를 잇는 새로운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져 갔습니다. 또한 MDGs는 2015년으로 약속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 목표를 만들자는 의견은 한층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드는 과정은 새천년개발목표를 만드는 과정과는 달랐습니다. 이 과정에는 개별 국가들의 시민사회,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그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실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새로운 정신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새천년개발목표와 비교하여 내용면에서도 상당히 발전되었습니다. 우선, 새천년개발목표는 가난한 국가들이 겪는 문제 중 기초적인 빈곤 및 보건의 문제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빈곤이라는 것을 소득이 적은 국가의 문제라고만 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빈국과 개발도상국 외에도 빈곤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부의 불평등이나 빈곤의 구조적인 원인은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천년개발목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선진국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함께 공동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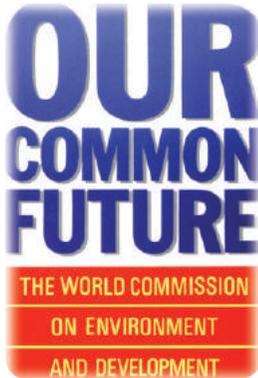
또한 새천년개발목표는 사회를 발전시키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되어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그 국가의 시민들이 모두 평등하게 발전의 결과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목표에는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환경보호, 정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은 목표가 포함되었습니다.

!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비교 !

목표의 이름	새천년개발목표 MDGs(2002-2015)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2016-2030)
범위	사회발전 중심	지속 가능한 발전(경제, 사회, 환경 포함)
달성 주제	극심한 빈곤 중심	모든 형태 빈곤과 불평등 감소
달성 대상 국가	개발도상국이 달성해야 하는 문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공통의 문제
재원 마련	개발재원: 공적개발원조(ODA)*중심 (공여국 -> 수원국)	국내공공재원(세금), ODA, 민간재원 (무역, 투자) 등 다양
감시와 모니터링	자발적으로 이행을 유엔에 보고	유엔이 주도하여 각 국가의 보고를 권고함

*공적개발원조(ODA)란 빈곤퇴치 및 경제/사회개발을 위해 국가의 세금으로개발도상국을 돕는 원조를 뜻합니다.

사실 SDGs가 2015년에 합의되기 이전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이미 있었습니다. 이 용어는 1987년도에 만들어진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 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 라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당시 위원회의 위원장이던 노르웨이의 수상 ‘브룬트란트’의 이름을 따서 ‘브룬트란트 보고서’ 로도 널리 알려진 이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 및 노르웨이의 전 수상 브룬트란트(Brundtland)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왜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1987년 이전부터 이 지구의 자원은 한계가 있기에, 환경을 파괴하는 현재의 생활방식과 발전의 방향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988년 유엔총회는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권고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유엔 및 각국정부의 기본이념으로 삼을 것을 결의하고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최된 것이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지구 환경 질서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리우 선언과 환경실천계획인 의제21(Agenda 21)이 채택되는데 이로 인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한국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한국에서는 대통령 자문 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2007년 8월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발표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의 위원회로서 지위가 낮아진 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하루아침에 등장한 것이 아니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국가의 정책에 도입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이미 2000년대부터 시작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SDGs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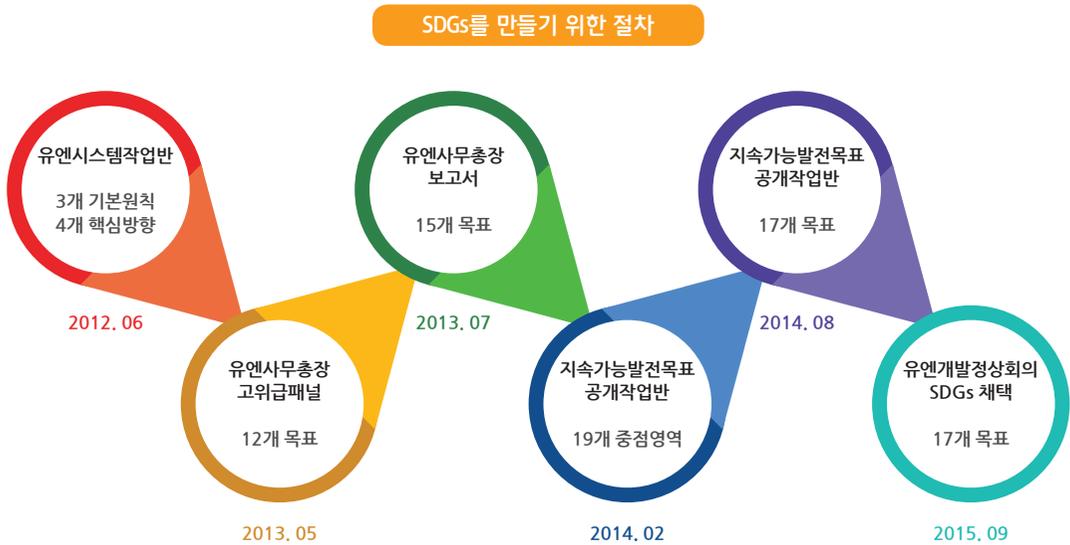
2015년 9월 25일 뉴욕에서는 제70회 유엔 개발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전 세계 유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채택되었습니다.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이 문서가 채택되기까지 193개 유엔 가입국 모두가 합의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수많은 회의가 열렸고 목표의 개수와 내용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빈곤 퇴치와 경제 개발을 넘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 수립은 유엔에게 주어진 쉽지 않은 과



세계정상들이 모인 제 70차 유엔총회

제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전 세계 국가가 동의하는 공동의 약속이기 때문에 수립과정에서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정부대표, 시민사회와 학자 등 여러 사람들은 실현 가능하면서도 이전보다 향상된 목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습니다.



2012년 6월 ‘유엔시스템작업반’은 ‘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미래의 실현(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개발협력 목표의 기본적 틀로 3개 기본원칙(인권, 평등, 지속가능성)과 4대 핵심 방향(평화와 안보, 포괄적 사회개발, 포괄적 경제개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엔사무총장고위급패널, 유엔사무총장실,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이라는 유엔 내의 세 가지 기관은 각각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새로운 개발협력의 잠정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고통과 위기에 대해서 저마다 조금씩은 주장하는 바가 달랐지만, 빈곤퇴치, 성평등, 양질의 교육, 보편적인 보건 및 의료, 식량과 영양, 식수, 공평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거버넌스 등이 공통의 문제라는 데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 중 2013년 7월에 발간된 유엔사무총장 보고서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선진국들도 겪고 있는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별도의 목

*** 거버넌스란(Governance)?**
 일방적인 정부(Government)의 통치가 아닌, 모든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뜻합니다.

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국제 시민사회의 주장이 수용되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2월부터 시작된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은 앞서 나온 다른 유엔 기관의 아이디어들을 포함하여, 새로운 개발협력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총 13차례의 회의 끝에 공개작업반은 2014년 8월 17개 목표를 담은 문서를 유엔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유엔 내부에서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바로 SDGs의 17개 목표를 담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환: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3 SDGs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무엇을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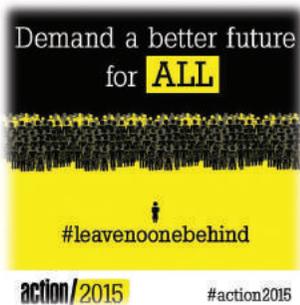
Beyond2015에서 전 세계 정상들에게 SDGs를 채택하기 전 보낸 메시지 카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이 사회를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제사회에서는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며 다른 명칭으로는 비영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가난을 퇴치하고 성평등을 달성하고, 환경을 보호하기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전 세계 시민들의 의견이 SDGs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2010년부터 ‘Beyond 2015’라는 캠페인 단체를 결성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이어받아서 더욱 발전되고, 전 세계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목표를 만들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이름인 ‘Beyond 2015’는 새천년개발목표가 끝나는 2015년을 넘어 MDGs 이상의 원대한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2012년부터 ‘Beyond 2015’는 유엔의 SDGs 수립과정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Be-

yond2015는 2015년을 기준으로 132개의 국가의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action/2015라는 캠페인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많은 세계시민들이 기후 변화, 빈곤, 불평등과 같은 전 세계의 문제점들에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구성된 시민사회의 캠페인입니다. action/2015 캠페인은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202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캠페인 네트워크입니다. Beyond 2015의 목적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구성에 전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action/2015는 지속가능발전목표뿐만 아니라, 지구가 겪고 있는 가장 긴급한 위기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에도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action/2015의 캠페인 슬로건 이미지와 2015년 9월 유엔총회 기간 중 진행된 캠페인 사진

국제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구성되는 절차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2012년 초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본격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논의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개발협력 분야의 협의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지구촌빈곤퇴치시민연대(GCAP-Korea) 이렇게 세 개의 단체는 'Beyond 2015 Korea'를 결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Beyond 2015 Korea는 주요 유엔의 정책 문서를 함께 읽는 강독 프로그램, 공개 토론회 및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서 한국 안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 종사자들과 시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SDGs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무엇을 했을까?



정부,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참여한 Post-2015 개발의제/SDGs 관련 포럼 모습

한국 정부와는 공식/비공식 정책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내의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한국 정부가 조금 더 한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아시아 여러 국가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꾸준히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 대표단은 유엔 총회기간 동안 뉴욕을 방문하여 총회를 참관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합의되는 뜻 깊은 현장에 동참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KCOC, KoFID, GCAP-Korea, 세 개 단체가 action/2015 Korea를 결성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널리 알려왔습니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용해야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유엔의 관련 문서 강독을 진행하며 한국 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습니다.



2014, 2015년도 SDGs 캠페인 현장의 모습



1 둘

SDGs 자세히 살펴보기

1. SDGs의 17개 목표
2. SDGs의 구조
3. SDGs가 달성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

SDGs의 17개 목표

이제 우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으며, 그 개념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세하게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하나하나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목표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SDGs의 첫 번째 목표는 모든 곳에서 모든 빈곤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 목표에는 절대빈곤의 퇴치와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목표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를 달성하며, 개선된 영양상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화한다.

두 번째 목표는 기아를 종식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빈곤층과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며,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을 통하여 식량안보를 달성해야 합니다.



목표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

세 번째 목표는 건강에 관련된 목표입니다.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어린이의 수를 줄이는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보건서비스를 모두에게 공급하는 것, 그리고 보편적인 의료보장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표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네 번째 목표는 양질의 교육에 관련된 목표입니다. 남녀 및 장애인, 선주민 등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대학, 기술 훈련, 직업 훈련 등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 번째 목표는 인류의 절반인 여성에 관한 목표입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정치, 경제, 공공 등 모든 부문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혼, 강제 결혼, 인신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나쁜 관행을 근절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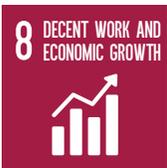
목표6. 모두가 물과 위생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보장한다.

여섯 번째 목표는 깨끗한 물과 위생에 관련된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을 보장받는 것을 포함하여, 수질 오염 감소, 수자원 관리 등의 세부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표7. 모두를 위한 적당한 가격이며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을 보장한다.

일곱 번째 목표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당한 가격의,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보급해야 합니다.



목표8.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여덟 번째 목표는 일자리와 경제성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창업 지원, 노동자 권리 보호, 지속 가능한 관광 등의 세부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목표9. 복원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증진 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아홉 번째 목표는 사회기반시설과 산업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는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환경 친화적 공정을 적용한 산업의 확대, 과학기술연구 강화 및 투자 등을 통해 달성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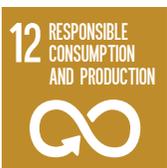
목표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열 번째 목표는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며,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목표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한다.

열한 번째 목표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에는 충분하고 적당한 가격의 주택공급, 취약계층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의 확산, 세계 문화와 자연 유산에 대한 보존 등의 세부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표12.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보장한다.

열두 번째 목표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선진국이 우선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음식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여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목표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시행한다

열세 번째 목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은 후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목표14.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한다.

열네 번째 목표는 해양생태계 보존입니다. 해양오염을 막고, 지나치게 많은 양의 어류 수확을 근절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 및 양식업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표입니다.



목표15. 지속가능한 육상 생태계 이용을 보호·복원·증진하고, 삼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중지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중단한다.

열다섯 번째 목표는 육상 생태계 보호를 위한 목표입니다. 이 목표에는 산림, 습지, 산악지역 등 모든 육상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사막화를 방지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목표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열여섯 번째 목표는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를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부정부패가 없으며, 폭력과 차별이 사라진 사회, 그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목표17.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마지막 열일곱 번째 목표는 지구촌 협력을 위한 것입니다. SDGs의 달성을 위한 자원마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술협력, 평등한 무역,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십과 데이터를 통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의 목표는 각각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 목표는 총 169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근절한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 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인다.”와 같은 세부 목표들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죠. 각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indicator)는 2016년 초에 유엔에서 결정됩니다(자세한 목표와 세부 목표는 부록을 참조하세요).

SDGs의 구성 체계



I SDGs 목표, 세부 목표, 지표의 예시 I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세부 목표:

- 1.1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
-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인다.
- 1.3 국가별로 최저 생계 보장 등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적절한 사회보장시스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 서비스,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유산·천연자원·적정 신기술,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에 대한 접근에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 1.5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복원력을 구축하고 기후 관련 재해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경감한다.

지표: (아래 지표는 예시이며 확정된 지표는 2016년 초에 결정됩니다)

- 하루에 1.25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의 비율
- 국가가 정한 빈곤선 이하에 사는 인구의 비율(도시/농촌)
-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입는 인구의 비율
- 남성, 여성, 원주민, 지역 주민 중 토지, 유산, 천연 자원에 대한 권리를 문서 혹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장 받는 사람들의 비율 / 앞의 비율을 인정받고 보호받는 사람들의 비율
- 기후 변화와 기후 변화 이외의 자연 재해로 인한 재산의 손실 가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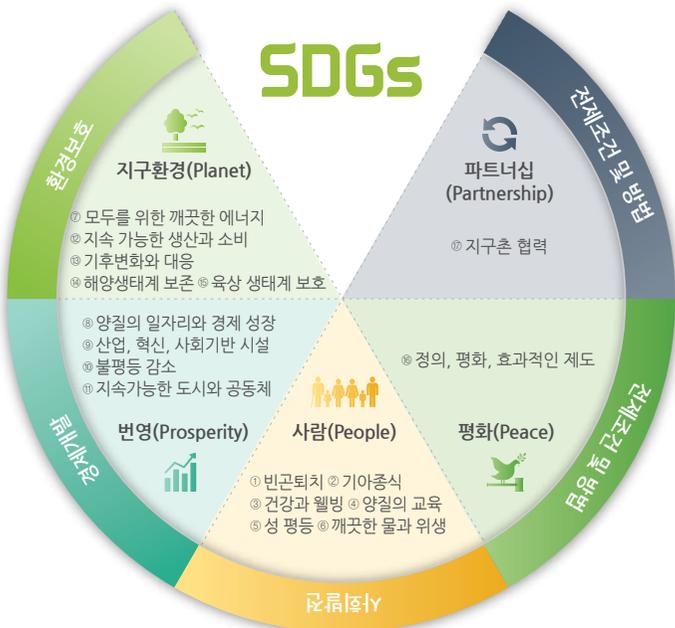
2 SDGs의 구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는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7개 목표 중 목표1부터 목표6은 사회발전 영역의 목표로, 이 목표의 달성을 통해 빈곤퇴치 및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목표8부터 목표11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통한 경제규모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경제환경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7, 12, 13, 14, 15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현재 지구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는 환경을 오염시키며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목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DGs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



그렇다면 목표 16과 17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1번부터 15번까지의 목표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달성해야하는 목표라면 16번과 17번은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 및 방법을 담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번은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효과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며, 17번 목표는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SDGs는 5P 개념으로 각 목표

들을 구조화할 수도 있습니다. 5P는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환경(Plane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의 첫 번째 글자인 다섯 개의 P를 의미합니다. 이 5P는 새로운 개발 의제의 기본정신이자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 보호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지구촌 협력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3 SDGs가 달성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제적으로 합의되었지만, 이것이 달성되는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저 말뿐인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달성되는지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최종 문서에서는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미리 정하여 새로운 목표가 공허한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극빈층과 함께하는 연대정신을 강조하면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유엔기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단체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유엔 기구는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곳입니다. 이 기구는 유엔 총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함께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할 예정입니다.

고위급정치포럼은 정기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상황을 평가합니다. 평가는 모든 나라에게 보고를 요청하는 자발적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보고서는 각 국가에서 장관급 지위를 가진 사람이 주도하여 준비해야 하며 해당 국가 내의 관계자들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보고서는 각 국 정부들이 유엔에 제출하여 고위급정치포럼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보고서의 준비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실제로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의 목표, 169개 세부 목표 그리고 수백 개의 지표로 이루어집니다. 지표는 유엔에 소속된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s, IAEG-SDGs)'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려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할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핵심 가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할 때, 세분화된 통계(Data disaggregation)를 적용해야 합니다. 언뜻 어렵

게 들리지만 말 그대로 성별, 연령, 거주지, 인종, 언어, 장애 여부, 사회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통계를 분리하여 취합하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지난 새천년개발목표(MDGs) 때에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평균값이 일정 수치를 넘었으면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취급하였습니다. 평균은 대표성을 가지는 값이긴 하지만, 양 극단의 개별적인 현실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는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지역과 사람들에게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따로 분석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 자세하고 세분화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 통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이 추가되지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일 것입니다.

SDGs를 설명하는 5가지 중요 포인트!

1.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새천년개발목표와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가요?

새천년개발목표는 8개의 목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의 목표입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빈곤이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며 가난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모든 국가의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빈곤이나 교육, 보건과 같이 가난한 국가에서 달성해야 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불평등 완화, 지속 가능한 소비, 기후변화 대응과 같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포함됩니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누가 만들었나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한 사람이나 한 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거의 3년에 달하는 오랜 기간 동안 UN과 회원국 정부, UN 기구, 시민사회단체, 기업, 연구소, 언론 등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새천년개발목표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3. 왜 지속가능발전목표란 명칭을 사용하나요?

원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 이후의 개발 의제(Post-2015 Development Agenda)'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새천년개발목표가 끝나는 2015년 이후에 달성해야 할 목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 및 소비 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며 최종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명칭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4. 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인가요?

새천년개발목표의 개수는 8개였기에, 처음 새로운 글로벌 개발 목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8개 혹은 10개 정도의 목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목표들이 필요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논의과정에서는 10개 혹은 12개의 목표가 제안 된 적이 있었지만 중요한 목표를 더욱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는 17개의 목표가 결정되었습니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하나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모든 국가들이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목표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전 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를 2002년부터 2015년까지로 약 15년간의 기한으로 시도한 바와 같이 이번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경우에도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동안 전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